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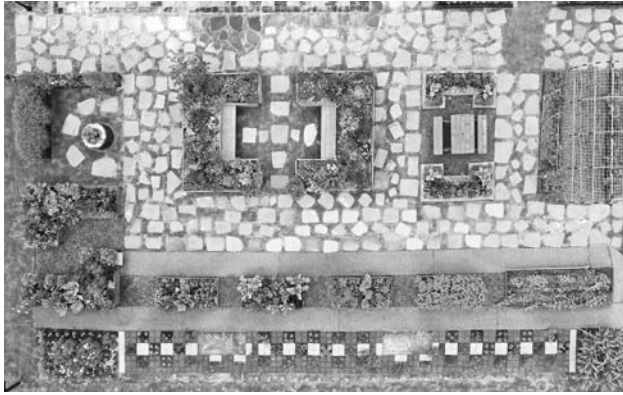
도시민 눈높이에 맞춰... '텃밭정원' 문 활짝

농진청, 모형 4개 중 고령자·장애인 위한 정원 세종에 첫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도시민 눈높이에 맞춘 텃밭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개 텃밭정원 모형을 개발하고 올해 실제 적용에 나섰다 고 27일 밝혔다.

자연과 가까워지고 심리·정서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도시 텃밭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지난해 174만,000명이 도시농부로 참여했다. 그러나 딱지풀 생산 위주의 기존 텃밭은 밭을 가꾸며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전용 공간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현상 수요를 반영해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도시민은 물론 반려동물·어린이 자녀와도 함께 텃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휠체어 등의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정원 △고령자 세대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체 텃밭정원.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공동체 텃밭정원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정원 △반려동물 동반 텃밭정원 등 4가지 텃밭정원 모형을 만들고 이 가운데 2개 모형을 이달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에 처음

보급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모델학습원(고운동)에 조성한 텃밭정원은 △휠체어 이용이 자유로운 텃밭정원 △고령자 세대 공

동체 텃밭정원이다.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정원은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바닥을 점토 벽돌 등 매끄럽고 균일한 재질로 깔았다. 특히 총 높이가 75~105cm의 높이 화단을 활용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텃밭 작업할 수 있게 꾸렸다. 이 텃밭에는 손이 많이 가는 열매채소 대신 기르기 쉬운 잎채소와 메리골드, 금잔화 등 허브·화훼류를 심었다.

고령자 텃밭정원은 골절 등 부상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 만들었다. 또한 강한 햇빛에 대비하고 휴식을 취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의자를 결합한 '디딤(디)' 모양으로 텃밭을 조성했다. 이 텃밭에는 로즈마리, 세이지 등 허브와 화훼류를 심어 향을 맡고 색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텃밭정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텃밭정원에 조성되지 않은 나머지 2개 모형 중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정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포함했다. 반려동물 동반 텃밭정원은 울타리를 설치해 정원 안에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신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의 후각 활동을 돕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도록 지침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때 4개 텃밭정원 모형을 적용되도록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맞춤형 도시 텃밭정원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도시민이 텃밭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건강을 챙기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상의, 도내 기업체

임직원 대상 세법 실무교육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27일 도내 기업체 세무담당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Tax Point 20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내 최고의 세법 전문가이자 기획재정부 국제세무심사위원회 위원인 안병선 세무사(강사)가 나서 법인의 수익과 비용구조,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등의 핵심 사항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인 세무조사 응대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교육은 기업체 실무 담당자들과 임원들이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들을 위주로 과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법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알찬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내달 31일까지 환전·송금허면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스윗썸머드림 페스티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영업점에서 환전·송금한 개인고객에게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을 드리는 '스윗썸머드림 여름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또는 송금하는 개인 고객에게 트리밍과 여행용 캐리어(1명) △국민관광상품권 50만원권(4명)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5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500원)을 추첨해 제공한다.

또한 건당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거래 시 선착순 1,000명에게 NH 농협은행 모바일 보험상품권 5,000원 권과 모든 환전 고객에게 와이퍼도사탁 15% 및 도시락유심 5% 할인 등 제휴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윤상기자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오늘부터 공모

임원추천위 열어... 내달 10일까지 모집 결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8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대해 28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임명제청을 한 후 임명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8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게시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북도, 청년친화기업 탐방 프로그램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경제진흥진흥원이 '청년친화기업 탐방'을 진행해 참례된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의 취업동기부여와 도내 정경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은 '청년친화기업'에 탐방을 통해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나리찬(주)필요, 월드탑커피협동조합 등 10개사를 방문했다.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친화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해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선호한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50개 기업과 청년 120명이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기업 성장 컨설팅을 지원

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기업탐방에 참여한 양선주씨는 "도내에도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년친화기업에 취업하여 일·생활 균형을 맞추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좋은 기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업탐방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과 청년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сп이스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있을 수 없는 일'

전북은행, 금감원과 전주 신중양시장서 피해예방 캠페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сп이스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보이сп이스싱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과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전북은행은 금융감독원, 전북도, 전북경찰청, 신중양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보이сп이스싱 및 불법사금

용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을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보이сп이스싱 유의사항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결제 사례를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캠페인 외에도 전북은행은 직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5억 6,000만원, 올해 상반기 2억5,0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FDS시스템(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상거래 분석을 통한 즉각 대응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한국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сп이스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주기적인 홍보, 다양한 문진포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민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신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 동참

전북신보보증재단은 유용우 이사장이 지난 26일 오전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자금으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등을 안내했으며, 오후에는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сп이스싱 근절 캠페인'을 전북도와 합동으로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 사금융 및 각종 보이сп이스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경찰 경찰서 및 도내 시·군청과 합동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년중 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전북신보보증재단



내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본부장 윤동욱)와 합동으로 도내 금융복지 상담 접근성이 부족한 금융취약계층 및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및 보이сп이스싱 근절 캠페인과 상가방문교육을 진행했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최근 고도화·지능화해 가고 있는 보이сп이스싱 및 불법 사금융 등 금융사기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사기 피해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지원과 불법 사금융 및 보이сп이스싱 근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063-230-3333 '내선6' 또는 063-230-3399)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